

일

굴

백삼십만 인천시민의 교육을 총 책임지고 있는 金千洪 교육감—.

인천직할시가 1981년에 경기도로부터 독립된 살림살이로 분가(分家)한 이래

초대 인천시 교육감으로 취임한 金千洪교육감은 할일이 너무나 많아 한치의 寧日도 없다.

인천이 중구 송학동에 자리잡고 있던 교육위원회가 南区 九月洞의 지금 새청사로 이전하여 집무를 시작한것이 82년 12월말로서 83년초부터 인천시민의 제2세대 교육을 시작한 것이다.

학교수 241개교, 학생수 30만여명을 관장하고 있는 金교육감은 스포츠맨답게 소탈하게 기사를 맞이한다.

현재 연 2회씩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의 기생충검변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나라의 현실로 미루워 볼 때 아직도 인분을 비료로 해서 재배한 채소가 많

仁川직할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金千洪 씨

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비닐하우스 재배등 재배과정의 개선이 많이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완벽을 기하지는 못한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볼 때 채소에 부착된 기생충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연 2회 집단기생충검사는 절대 필요한것으로서 만일 중단하거나 연 1회만 검사할 경우 재감염이 되어 그간의 공로가 수포화 할 우려마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이 나빠지면 전체 국민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그러므로 국민들에게 기생충검사를 하게 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몽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또 이런 분야를 맡은 분들은 의무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힘주어 이야기하는 金교육감은 경쾌한 어조로 논리정연한 이론을 전개한다.

지난 20년간에 걸친 寄協의 검사사업은 헛되지 않아 학생의 경우 초기에는 80~90%의 감염율이었던것이 지금은 인천의 경우 10%미만으로 떨어져 격세지감이 있노라면서 寄協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한다.

『이제는 寄協에서도 간, 페디스토마등 특수기생충 발견사업이라던가 민물고기의 중간숙주 발견사업등 조사연구와 이들의 구제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생충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등을 이야기하는 金교육감의 해박한 지식에 기자는 속으로 감탄하고 있었다.

— 건강관리사업의 필요성을 어떻게 보시지요?

『健協의 필요성은 절대적입니다. 과거 우리 국민은 경제적인 면에서 곤란한 시기가 있었읍니다. 그때에는 평생 한번도 병원에 가보지 못한 사람이 많았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예전과 달라 경제적으로도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고 있고 제 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도 보건문제가 중요시 되어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은 곧 국력의 성장과 비례한다고도 볼 수 있지요. 더구나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체력관리는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예방의학을 목적으로한 健協의 기여도는 크다고 봅니다. 예방치료로서 국민건강에 기여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金교육감은 학교보건 및 건강관리에 대하여 역설하면서 교직원들의 건강관리문제에도 언급한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직자들의 건강관리문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인천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협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으나 각종 회의시나 일선학교에 출장시 건강검사를 권장하고 있지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것은 자기자신의 직분을 잘 하려면 첫째 자기의몸이 건강해야하고 그래야 학생들의 지도도 자신있게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건협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권장하고 희망자는 미리 건강진단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검사는 전체를 권장하기는 어렵지만 학부모등 모임이 있을때 계몽하고 계도해서 능동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호교사 연수회나 세미나등에서도 그들의 역할이 큼을 역설하기도 합니다.』

金千洪교육감의 이야기에서 학생과 교직자의 보건향상에 대한 열의가 대단함을

사진: 기자 및 기
협인천지부 간부와
대담하는 金교육감
(中央)



느낄 수 있어 기자는 흐뭇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 金교육감님이 이끄시는 인천교육의 특색이라면 어떤것이 있는지요?

『우리 인천교육은 “인천의 얼”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시민들과 호흡을 일치시켜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주인정신에 역점을 두어 확산시켜야 합니다. “敬老思想”을 함양시켜 가정의 효도를 가르칩니다. 요는 양보다 질적향상이 긴요하지요.

또 내가 주장하는것은 ① 학력향상 ② 올바른 생활지도 ③ 특기의 신장발전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즉 학력향상이란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자는 것입니다. 즉 중학생은 중학생의 학력을 국민학생은 국민학생의 학력을 명실공히 갖자는 이야기지요. 둘째 생활지도란 올바른 생활태도를 가져 민주시민으로서 질서를 잘 지키며 올바른 학생상 부각에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소질이나 특기를 신장 발전시키자는것은 학생은 그럼에 소질이 있는데 부모님은 예를 들어 의사를 원한다든지 소질을 무시한 학생교육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진흥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수한 과학자를 발굴하려면 기초과학이 생활화되어야하겠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바야흐로 첨단과학이 고도로 발달되어 하루가 멀다고 발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될려면 과학기술진흥이야말로 필수적인 것이지요.』

— 교육감님은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시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는지요?

『내가 평생동안 가지고 있는 좌우명은 「성실」입니다. 자기자신의 발전은 성실하게 최대한 노력하는것이 인간된 도리이겠지요.』

이런 신념을 가진 교육감 밑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학생과 교직원들은 참으로 행복하겠구나를 생각하면서 교육위원회의 웅장한 건물을 나서는 기자의 발걸음은 한 걸 가볍기만 하였다.

취미는 등산, 테니스. 부인 尹貞禮여사와의 사이에 3男1女.